

출장결과보고
2012. 12.

2012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지역개발정책위원회(TDPC) 및 관련 작업반
회의 결과

농촌정책연구부
채종현 전문연구원

목 차

I. 출장 개요 1

II. 일정 및 주요 회의 안건 1

III. 주요 회의 내용 2

1. 제14차 농촌 지역 정책 작업반 회의 결과 2
2. 제24차 지표작업반 회의 결과 12
3. 제28차 지역개발정책위원회(TDPC) 회의 결과 20

I. 출장 개요

1. 출장건명: OECD 지역개발정책위원회 및 관련 작업반 회의 참석 해외출장
2. 출장 목적
 - 경제협력개발기구 제28차 지역개발정책위원회(TDPC) 및 제14차 농촌지역정책작업반 회의 등 관련 작업반 회의에 참석하여, 농촌지역개발 분야에 있어 OECD 국가들이 논의하는 최근의 주요 이슈와 정책 동향을 파악함.
 - 이번 2012년 OECD 농촌작업반 회의에서 다루어질 원격지 농촌의 경제개발, 농촌 지역 혁신, 신농촌패러다임 등에 대한 논의는 기초생활권 개발, 농촌지역일자리 창출 등 우리 연구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연구와 관련하여 좋은 참고가 될 수 있음.
3. 출장자: 채종현(농촌정책연구부 전문연구원)
4. 출장 지역: 프랑스 파리(OECD 본부)
5. 출장 기간: 2012. 12. 2(일) ~ 12. 8(토) (5박 7일)

II. 일정 및 주요 회의 안건

일 자	주요 일정	주요 회의 안건
12.2(일)	인천 → 파리	
12.3(월)	지표작업반(WPTI) 제24차 회의 참석	• 도농간 연계에 대한 이해 • 지역·도시 단위의 웰빙 측정 • 자료의 시각화 ※ '도시작업반(WPURB) 제15차 회의'는 지표작업반 회의와 일정이 겹쳐 미참석
12.4(화)	TDPC 심포지움 참석	• 차터 도시의 향후방향 • 도시형태 계획수립 • 신흥경제 전망(인도의 도시성장과 거버넌스)
	지역개발정책위원회 제28차 회의 참석	• 차기 TDPC 장관회의 정책의제(2014년 봄) • 재난 이후 재건사례: 이탈리아 아부르초 라퀼라

12.5(수)	지역개발정책위원회 제28차 회의 참석	• 2013-14년 작업프로그램 이행, 공공투자 관리 • 녹색도시, 스마트 시티
12.6(목)	농촌작업반(WPRUR) 제14차 회의 참석	• 도시지역 거버넌스 및 파트너쉽 • 농촌과 원격지 경제개발 • 농촌지역 혁신 • 신농촌 패러다임 차기 단계 • 농촌지역 천연자원 및 관련 서비스
12.7(금) ~12.8(토)	파리 → 인천 (기내 1박)	

III. 주요 회의 내용

1. 제14차 농촌 지역 정책 작업반 회의 결과

□ 회의 개요

1. 주요 의제

- 농촌 지역 거버넌스 및 파트너쉽
- 8차 OECD 농촌개발정책회의 주요 내용 보고, 농촌과 오지 지역의 경제 개발
- 농촌에서의 혁신: 농촌에서의 성장 패턴과 혁신의 촉진
- 농촌 개발의 원칙(Principles): 신농촌 패러다임(NRP: New Rural Paradigm)의 차기 단계(현대 농촌 정책의 원칙을 설정하기 위한 로드맵 논의)
- 농촌지역 천연자원 및 관련 서비스: 토지 이용 프로젝트
- 차기 TDPC 농촌작업반 의장 선출 과정 논의

2. 일시: 2012년 12월 6일(09:30~18:00)

3. 장소: 파리 OECD 본부 컨퍼런스센터 CC13

□ 핵심 요지

- 제14차 농촌작업반 회의에서는 도시와 농촌과의 관계 형성이 중요한 안건으로 다루어졌으며, 도농간 파트너십, 다층적 거버넌스 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음. 이러한 주제가 농촌 개발 정책에 있어 중요한 요소라는 회원국 사이의 공통된 인식이 있었음.
- 농촌의 특수한 상황을 반영한 개발 전략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졌음. 원격지 농촌 개발과 농촌에서의 혁신은 도시와는 다른 측면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기반으로 논의가 진행됨.
- 신농촌 패러다임의 다음 단계로의 진전을 위해 농촌 지역의 상황에 대한 간략한 분석 내용이 발표됨. 도시에 비해 농촌이 낙후한 것은 사실이나 인구성장률, 1인당 GDP성장률 등의 측면에서 농촌이 도시보다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이러한 농촌의 변화를 반영하여 신농촌 패러다임의 근본 원칙에 대한 검토와 논의가 이루어짐

□ 관찰 및 평가/건의

- 농촌작업반에서 다루고 있는 여러 대응 과제들은 한국의 농촌이 직면하는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으며, 이의 해결을 위해 작업반에서 논의되고 공유되는 회원국들의 다양한 정책적 시도와 경험들에서 한국의 농촌에 적용 가능한 정책적 사례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임.
- OECD 내에서 도시와 농촌 간의 협력 관계 구축이 중요한 과제임을 인식하고 있으며, 이번 회의에서는 이러한 파트너십 형성을 위한 제도적 지원에 관한 발표와 논의가 이루어짐. 하지만 국가와 지역에 따라 처해 있는 상황이 다양할 수 있기 때문에 파트너십 형성을 위한 지원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음
- 한국에서 도농간 파트너십은 마을 단위의 운동적 성격으로 추진된 경향이 있었으며, 대표적으로 일사일촌을 들 수 있으나, 최근 지자체 단위의 농촌과 도시간의 정책적 협력이 나타나고 있음을 고려할 때 OECD의 논의가 국내 도농간 파트너십 형성 지원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또한 도시와 농촌을 아우르는 지역 개발 정책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OECD 회원국들의 논의는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임

- OECD의 주요 국가들은 지자체의 자율성이 한국에 비하여 높은 편이며, 이번 회의에서 발표된 이탈리아의 다층적 거버넌스 사례도 국내 환경과는 다소 맞지 않는 면이 있음.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의 거버넌스를 형성하고 지역의 거버넌스 형성을 촉진해야 함은 OECD에서의 논의와 맥락을 같이 하나, 한국의 특성을 고려한 관련 정책 마련이 필요함
- 이번 회의에서 발표된 알래스카 오지 지역 개발 사례는 한국 상황에서는 다소 극단적인 오지 지역 사례일 수 있음. 다만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 등은 참고할 수 있을 것임
- OECD 농촌작업반에서의 혁신에 대한 논의는 다소 경제적 혁신에 치우친 경향이 있으나, 도시에서의 혁신과는 다른 관점에서 농촌에서의 혁신을 개념화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임. 이러한 농촌에서의 혁신에 대한 개념 정의와 분석에서 국내 농촌에 적용 가능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주요 회의 결과

1. 도입 세션

- 제14차 농촌지역정책작업반 회의 안건 소개
- 제13차 농촌지역정책작업반 회의의 요약 기록(summary record)에 대한 승인
- 개회사 및 기조 발언(농촌작업반 의장: Mr. Richard. Wakeford)
 - 농촌작업반 의장이 ‘8차 농촌 개발 정책 회의(농촌 경제의 혁신과 현대화)’의 주요 결과를 보고, ‘신 농촌 패러다임’ 작업의 연속선상에서 현대 농촌 정책의 근본 원칙 개발이 중요함을 강조.

2. 의제별 세부 논의 결과

1) 농촌 지역 거버넌스 및 파트너십

■ 도농간 파트너십

① 주요 발표내용

- 도시와 농촌은 투어리즘·여가, 경제, 노동 등으로 연계되어 있음. 농촌 발전을 위해서는 도시와 농촌 간의 파트너십 증진이 필요
 - 도시와 농촌의 파트너십은 상호간 문제 공유, 전략 목표 공유, 균형 발전, 모티베이션 등을 통하여 증진시킬 과제
 - 농촌과 농촌, 도시와 농촌 연계는 너무나 다양하며 거버넌스가 중요한 요소. 성공요인은 도출할 수 있으나 다양성으로 인하여 일반화하기는 난이
 - 상향식 지역 정책 접근이 성공적인 파트너십 형성에 유리. 또한 정책 관리의 유연성 향상, 지역의 정보력 향상, 지역 내 목표와 중앙정부 목표의 명확화, 전략의 우선순위 배정 및 관리, 성과관리, 신뢰도 증가 등이 도농 간 파트너십 증진을 위해 필요한 요소임.
- 도농간 파트너십 저해요인
 - 국가 및 지역 간 갈등, 능력의 불균형, 데이터 신뢰성 등의 문제로 도농 간 파트너십을 형성하기는 난이
 - 관련 프로그램의 경직, 정책의 지속성 결여, 신뢰의 문제는 도농 간 파트너십을 저하시킴
- 실제 농촌은 정체되어 있기 때문에 현장 중심의 정책 강화가 필요
 - 환경 정책은 농촌 정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농촌 지역의 다양성을 활용하여 도농간 파트너십의 활력을 높여야 함
 - 정책 수단이 결과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며, 때에 따라서는 중앙 정부의 관여가 필요한 경우가 있음

② 회원국 주요 논의 내용

- (룩셈부르크) 도농간 파트너십에 관한 OECD의 프로젝트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음. 도농 파트너십은 농촌 발전에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특히 정치 분야의 연계에 관한 고려도 필요할 것임.
 - 도농간 파트너십과 관련한 정책은 경제, 삶의 질, 공공 기관 등을 모두 포괄할 수 있어야 하며, 전략적인 발전 계획 마련이 필요할 것임
- (모로코) 자국에서도 지속적이며 통합적인 지역 정책을 추진 중임. 실제 정책 시행 과정에서는 사업을 위한 예산 마련이 중요한 요소였음. 또한 특히 저소득 지역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였음. 태양열 이용 등 새로운 에너지 효율화 정책도 추진하고 있음
 - 자국에서는 농촌 정책의 결과 도시와 농촌의 활력 수준이 바뀌는 경우도 있음. 일부 농촌에서는 도시보다 생활 수준이 높기도 함. 때문에 도시와 농촌을 구분하지 않고 필요한 정책을 지원하고 있음

■ 농촌 거버넌스

① 주요 발표내용

- 이탈리아에서는 지자체의 수가 지속적으로 줄고 있는데, 이는 자본 및 자원 부족, 지자체의 역량 저하 등이 원인. 이탈리아에서 지자체는 조그만 변화에도 대처하기 어렵기 때문에 중앙 정부의 관여가 다양하게 필요. 거버넌스의 수직적 관계가 필요한 이유임
- 하지만 수평적 거버넌스 관계도 필요. 북부 이탈리아 지역 6개 지자체 조사 결과에서는 지자체 단위에서의 자율적인 자산 운영은 정책 목표 달성에 유리하며, 사업의 자율성 확보는 정책의 효율화에 도움이 된다고 나타남
- 핀란드에서는 지자체의 경제 문제 악화, 생산성 저하, 지역 간 격차 확대, 도시 집중 등의 이유로 지자체 개혁을 추진 중
 - 지역 정부를 재정비하여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지속 발전이 가능하도록 '12년 320개의 지자체를 '15년 66개로 줄이는 목표를 가지고 있음. 하지만 현실적으로 정치적 문제 등의 이유로 달성하기 쉽지 않은 상태
 - 지역 정부 개혁만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중앙 정부와의 연계

강화, 민간 분야와 협력 제고 등이 필요

- 실제 정책 추진에서는 지역 간 특징이 상이하여 지역 혁신을 위한 정책 마련이 쉽지 않음. 다만, 지역 통합을 통한 혁신은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임

② 회원국 주요 논의 내용

- (터키) 지자체간 통합은 우리 정부도 바라는 바이지만, 정치적 문제 등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움
- (미국) 지자체간 통합은 미국에서 불가능함. 도농간 파트너십을 위해 새로운 규정을 제정하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생각함. 현재의 제도를 통해서도 충분히 도농간 파트너십을 발전시킬 수 있을 것임.
- (슬로바키아 대표) 지자체 단위의 자율성 확보가 반드시 정책의 효율화에 유리한 것은 아님. 국가 또는 지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일반화할 수 없을 것임.

2) 8차 OECD 농촌개발정책회의 주요 내용 보고, 농촌과 오지 지역의 경제 개발

■ 8차 OECD 농촌개발정책회의 주요 내용 보고

- 2012년 러시아에서 열린 8차 OECD 농촌개발정책회의에서는 ‘혁신(Innovation)’과 ‘농촌 경제의 현대화’가 주요한 두 가지 의제였음. 농촌의 성장 잠재력은 경제적 기반을 현대화(modernise)하고 혁신(Innovate)할 수 있는 역량에 달려 있음. 농촌 경제를 현대화하기 위해서는 농촌에서 혁신이 어떻게 발생하는지 이해하고 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만 함.
 - 농촌 경제 발전을 위한 고려 요소: 내·외부 시장 성장, 인적 자본(human capital) 강화, 기업가 정신과 혁신에 대한 연구와 촉진 지원
 - 농촌 고유의 기회 요인 활용의 극대화: 재생가능한 에너지, 관광, 숲, 로컬푸드 등
 - 장소 기반의 접근 방식(place-based approach): 지역 고유의 자원(asset) 활용

■ 농촌과 오지 지역 경제 개발

- 오지 지역 경제 개발 사례로서 Viable Rural Enterprises for Rural Alaska(ViBES) 프로젝트에 대해 발표. ViBES 프로젝트는 알래스카 지역의 다양한 농촌 지역의 소규모 기업들에 관한 계획임.
 - 알래스카는 높은 에너지 비용, 높은 실업 수준, 경제 수준 저하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젊은 층의 창업을 유도하고, 시민공동체의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음
 - 시민공동체 활성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찾고, 이를 기반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을 도출하며, 함께할 수 있는 일을 구체화하여 실행한 후 30일, 60일, 90일 동안의 성과를 분석하여 공동체 사업을 발굴
- 아이스랜드 농촌 지역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한 발표. 신농촌 패러다임에 기반한 농촌 정책의 적용과 수정 과정에 대한 아이스랜드의 경험을 발표
 - 아이스랜드에서는 인구의 64%가 리키백 지역에 거주하고 있음. 이 지역에서도 농어촌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소규모 어항이 전국에 걸쳐 분산 분포하고 있음
 - 인구 감소의 원인은 지속적인 발전이 어려운 지역 상황, 열악한 교육·문화·서비스 환경, 가업을 계승하지 않는 젊은층 등임.
 - 아이스랜드가 직면한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하여 지역 내 중심지 강화, 공공·민간 부문의 파트너십 제고, 지역 내 자치구 간의 연계, 서비스 조정 등을 추진하고 있음

3) 농촌에서의 혁신: 농촌에서의 성장 패턴과 혁신의 촉진

■ 농촌에서의 성장 패턴과 혁신의 촉진

① 주요 발표내용

- 신농촌 패러다임(NRP)의 점검을 위해 전형적 농촌(PR: Predominantly Rural)의 특징을 OECD의 다른 지역 유형과 비교 분석, 이러한 비교는 신농촌 패러다임의 단계 논의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 전형적 농촌은 상당히 안정적인 정주 패턴을 유지
 - OECD 인구의 과반수 이상이 비도시 지역에 거주(농촌 25%, 중간지 28%), 이러한 비율은 1995-2010년 간 변화없이 안정적으로 유지
 - 농촌 주민의 상당 수가 도시 인근 농촌 지역에 거주: 농촌 인구의 77%가 농촌 도시 인근 농촌 지역에 거주, 13%의 인구만이 오지 농촌에 거주
- 도시는 농촌에 비해 뛰어난 경제 기반을 갖추고 있으며 규모의 경제와 집적의 효과를 향유, 실업률도 농촌에 비해 낮은 편: 도시가 농촌보다 1인당 GDP는 40%, 생산성은 32% 높음
- 1995-2007년 간 지역 유형별 성장 패턴에도 차이가 나타남
 - 농촌은 1인당 GDP와 생산성에서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 반면 도시는 총 GDP와 인구 성장에서 농촌보다 높은 수치를 나타냄
 - 1인당 GDP와 생산성에서 도시 인근 농촌이 가장 빠른 성장을 기록, 농촌 오지 지역도 2번째로 높은 성장률을 기록.
 - 인구 성장 측면에서 도시 인근 농촌 지역은 인구가 증가하는 반면, 농촌 오지 지역은 인구가 감소
 - 농촌 지역은 도시와 중간 지역(intermediate)에 비해 성장(1인당 GDP, 생산성)이 불안정
 - 중간 지역뿐만 아니라 농촌도 성장에 있어 수렴 과정에 진입한 것으로 판단. 하지만 집적 효과가 발생하는 것 같지는 않음
- 분석 결과에 따르면 농촌과 도시, 도시 인근 농촌과 오지 농촌 지역 간에 서로 다른 정책적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
 - 모든 농촌 지역은 낮은 인구 밀도, 낮은 접근성, 임계치(critical mass) 부족 등의 특성을 가짐
 - 특히 오지 농촌 지역은 도시 인근 농촌보다 상당히 낮은 임계치를 기록
- 혁신에 대한 논의를 제안. 다음의 내용들에 대한 회원국들의 적극적 의견 개진을 요청
 - 특허권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측정 방식 개발이 필요: 농촌에서의 혁신은 과학과 기술에 초점을 맞춘 혁신의 개념과 맞지 않음
 - 농촌 지역에서의 혁신은 일반적인 혁신 체계를 따르지 않음: 혁신 체계보다

는 개별 기업이 혁신을 주도

- 농촌에서의 혁신은 잠재적으로 도시에서의 혁신보다 중요: 농촌이 보다 경쟁에 노출되어 있음. 혁신을 통해 비용 절감, 상품 품질 개선을 달성할 필요 있음
- 개별 기업에 대한 지원이 농촌에서는 중요한 요소, 혁신 체계에 대한 지원을 주요 전략으로 하는 도시와는 차이가 있음
- 농촌에서의 혁신은 다른 지역과 OECD국가에 중요한 이익을 가져올 수 있음: 농촌에서의 혁신은 시장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파괴적 혁신이 아님.

② 회원국 주요 논의 내용

- (미국) 지역에서 리더의 열정은 농촌 개발에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임. 농촌에서의 혁신을 위해서는 리더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함.
- (호주) 소규모 도시일지라도 혁신을 위한 인프라가 충분할 수 있음. 농촌과 도시의 연계를 생각한다면 농촌 혁신에 있어 인접 도시의 상황과 영향력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 (EU) 농촌에서 필요한 혁신 중 하나는 생산 비용 절감임. 최근 에너지 비용 상승으로 인한 농촌 에너지 위기 도래로 이러한 혁신의 필요성이 더욱 증가함. 에너지 비용 상승은 농산물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결국 농촌의 경쟁력 하락을 유발함. 에너지 비용 절감을 위한 혁신을 촉진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혁신 촉진을 위한 지원에서는 지역 환경, 교역 조건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하지만 이러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혁신이 발생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음
- (네덜란드) 세계화와 기후 변화 등으로 농업에서의 혁신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함. 에너지 효율화 등 농업과 농촌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혁신도 이러한 문제들을 포괄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해야 함

4) 농촌 개발의 원칙(Principles)

① 주요 발표내용

- 농촌 작업반 의장이 신농촌 패러다임에 대한 논의를 제안.
 - 신농촌 패러다임의 근본 원칙은 여전히 유효, 세부 방안들에 대한 보완은 필요
 - 농촌은 경제 성장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지만, 도시에 초점을 맞춘 논의에서는 종종 이를 간과: 농촌에서는 도시에선 창출될 수 없는 재화와 서비스를 공급(깨끗한 환경, 매력적인 경관, 문화적 유산 등)
 - 농촌 고유의 경제 개발 추진이 필요: 일자리의 질(quality) 증진, 지역 시장의 기회 요소 극대화, 기업가 정신 확산, 교육과 학습 장려, 혁신의 유형 파악 및 촉진 등
 - 농촌에서의 혁신은 일반적인 혁신과는 다른 양상을 보임: 농촌에서의 혁신에 대한 이해와 이를 고려한 지원이 필요. 혁신을 촉진하는 조건과 사회 구조를 창출하는 거버넌스와 제도적 환경과 파트너십 창출의 촉진자로서 거버넌트에 대한 고려가 동시에 필요

② 회원국 주요 논의 내용

- (이태리) 농촌 개발 정책에서는 농촌 공동체 의식을 중요하게 고려해야함. 신농촌 패러다임에서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경제적 요인들에 더하여 사회적 인 만족도 증진도 함께 포괄할 수 있어야 할 것임. 또한 이주 문제와 관련하여 이민자들의 사회적 통합도 신농촌 패러다임에서 다루어야 할 것임.
- (터키) 국가에 따라 그리고 한 국가 내에서도 지역에 따라 처해 있는 조건과 지역적 특성이 상이한 경우가 많음. 때문에 신농촌 패러다임을 지역 특성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음.

5) 농촌지역 천연자원 및 관련 서비스 : 토지 이용 프로젝트

① 주요 발표내용

- 도시와 농촌에 대한 접근이 관련 행정부에 따라 달라짐
 - 농촌을 개발 또는 보존, 규제 또는 지원으로 나누는 경우가 많음
- 농지 정책은 생태적, 공간적 접근이 동시에 추진되어야 하며, 증거주의에 입각한 학술 연구가 필요함
- 국가 공간 계획과 비전이 필요하며, 이러한 계획과 비전 설정에는 기후 변화가 영향을 미칠 것임. 또한 도시와 농촌이 연계된 공간 정책 추진이 필요함

2. 제24차 지표작업반 회의 결과

□ 회의 개요

1. 주요 의제

- **도농간 연계에 대한 이해:** 도시와 농촌 인구 성장과의 연계, 기능지역의 형성(도농 관계의 핵심 과제), 도시·농촌 간 지속가능한 파트너십에 대한 유럽 세미나 결과 보고, 도시·농촌 간 파트너십에 관한 독일 사례 등
- **지역·도시 단위의 웰빙 측정:** 사회의 진보 측정에 대한 4차 OECD 국제 포럼 결과 보고, 안전의 자기보고식(self-reporting) 측정에 관한 멕시코 사례, 공공서비스 접근성 측정, 지역·도시 단위에서의 과학 공동 연구, 컴팩 시티 측정(토지이용과 교통 지표개발의 기회와 도전과제)
- **자료의 시각화:** 클러스터 매핑 프로젝트, '2014 OECD 지역개관(Regions at a Glance)'의 웹 자료 기사

2. 일시: 2012년 12월 3일(월) 10:00~18:00

3. 장소: 파리 OECD 본부 컨퍼런스센터

□ 핵심요지

- OECD는 도시와 농촌 파트너십 방향, 복지측정 지표 개발, 대중교통 지표 개발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중점적 연구 작업을 추진하고 있어 각 국가들의 적극적인 참여 필요
 - OECD는 도시와 농촌 파트너십으로서 도시지역과의 거리에 따라 농촌에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를 본격적으로 조사 연구하고, 기능적 지역에 있어서 시와 농촌의 주요 도전과제에 대한 심도있는 연구를 추진하고 있음
 - 복지 측정에 있어 정책적 입안 과정을 모색하고, 경제적 및 사회적, 환경적 차원에서 지역과 도시의 복지에 관한 통계를 분석하며, 공공서비스 접근 차원에서 농촌과 도시 지역간 지역적 복지 측정에 관한 연구를 추진하고 있음
 - 특히, 대도시권 지역의 대중교통 지표 개발에 관한 활용성과 도전과제를 조사 분석하고 지속가능한 도시교통의 방향을 제시할 전망이며, 또한 대중교통의 지표 개발 연구를 통해 대중교통의 편익을 분석하고 합리적인 평가 방안 마련 추진 중

□ 관찰 및 평가/건의

- 도시와 농촌간의 합리적 지표체계의 마련에 대하여는 대다수의 회원국들이 동의하고 있으나, 국가들마다 중점적으로 역점을 두는 관련 분야가 상이하여, 체계적이고 통일적인 지표개발에는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일 전망
 - 우리나라도 다른 국가와 공동으로 OECD 중점적인 지표작업 연구사업 추진에 적극 참여하여 지속적인 Follow-up이 필요하며, 향후 OECD 연구결과에서 권고하는 도시와 농촌간의 다양한 정책에 대하여도 도입 및 검토 반영 필요
- OECD 차원에서 추진하는 대중교통 지표개발 작업과 관련, OECD에서 요구하는 한국의 교통관련 통계자료 등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다른 회원국들의 통계자료도 상호 공유하고 합리적인 교통지표개발에 공동 노력함으로써 향후 우리나라 교통정책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됨

□ 주요 회의 결과

(1) 농촌과 도시의 연계

1) 도시와 농촌 인구 성장과의 연계

① 주요 발표내용

- 농촌과 도시의 파트너십(2013년 최종보고)과 관련한 OECD 프로젝트 중 농촌 인구 성장과 도시 지역과의 거리에 관한 분석 내용을 소개함. 도시와의 거리가 농촌 인구 성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경험적인 분석 내용을 제시
- 도시와 농촌은 여러 측면에서 연계되어 있지만 인구 이동은 그 중 가장 중요한 연계 중 하나임. 도시와 농촌 인구 성장과의 긴밀한 연관성은 도시와 농촌 간의 상호 의존성이 존재하는 증거라 할 수 있음
 - 도시에 가까운 농촌일수록 인구 성장의 측면에서 더 나은 성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농촌과 도시의 관계에 있어 파급효과(spread effect)가 역류 효과(backwash effects)보다 우세한 것으로 판단됨
- 도시와 농촌 간 연계 및 파트너십에 관한 OECD 프로젝트에서는 지역 정책이 지역 개발에 관한 통합적인 접근법으로 나아가고, 도시와 농촌 간의 연계를 강화해야만 하는 이유를 재확인하고 있음
 - 도시와 농촌 간에 경제적, 공간적, 거버넌스 구조 등의 관점 계속 분석을 진행할 계획임

② 주요 논의 내용

- 농촌의 인구 성장이 도시와의 접근성에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 좀 더 자세히 이해해야 함. 또한 도시의 과잉 성장, 도시와의 거리와 관련된 순 영향 요인, 규모, 기능 및 성장 등 다양한 변인들에 대한 분석을 시행할 필요가 있음.

- 농촌이 도시의 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조사도 필요함. 이때에는 성장보다도 서비스, 복지, 쾌적함에 중점을 두는 것이 필요할 것임.

2) 기능 지역의 형성: 도농 관계의 핵심 과제

① 주요 발표내용

- 기능 지역에 관한 검토 결과 발표. 지역 지표, 우수 사례, 정책 제도 등을 검토하고, 2013년 이후 EU 통합 정책에 있어 기능 지역, 도시와 농촌 관계 및 공간 기반 거버넌스를 검토할 계획임을 언급함
- 기능 지역의 사회 경제적 변화, 정치·행정적 구역 분할과 기능 지역의 불일치, 지자체의 관할 범위와 기능 지역의 불일치, 기능 지역에 적합한 거버넌스 형태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② 주요 논의 내용

- 도시와 농촌 간 관계와 기능 지역에 관한 부가적인 문제들에 대한 논의 과정이 필요함. 효율성과 적법성의 대립, 강력한 구조적 의존성, 정치적 책임과 소유권 문제,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갈등 문제, 파트너 역량의 불균형, 입증 기반 정책 등이 주요한 도전과제로서 제시됨

3) 도시·농촌 간 지속가능한 파트너십

① 주요 발표내용

- 독일의 초지역적 파트너십 프로젝트에 관한 독일의 사례 발표. 도시와 농촌 간의 관계를 강화하고 도시와 농촌 파트너십 수립에 역점을 두고 있는 프로젝트임.
 - 독일 연방차원에서 프로젝트를 수행. 도시와 주변이라는 지역의 범위를 초월한 협력 증진을 강조하면서 지역의 경제 발전을 추진함. 특히 취약 지역

발전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함.

- 독일 대도시 지역에서의 새로운 거버넌스 모델로 이야기되고 있음. 특히 Stuttgart 지역의 공동 공간 계획은 좋은 프로젝트 사례임
- 다양성, 동기 유발, 역할 분담, 전략과 목표의 공유, 적절한 거버넌스 형성, 협력의 경험과 전통, 구체적이고 다양한 프로젝트 등이 성공 요소라 할 수 있음.

② 주요 논의 내용

- 지속적인 금융 위기와 경기 침체의 상황에서 지역 성장이 중요한 요소임에 공감. 유럽 2020 전략 내에서는 성장과 균형에 관한 지역 차원의 절충안으로 도시와 농촌 파트너십의 증진이 논의됨.
- EU 농업과 통합 정책에서 도농간 보다 나은 통합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을 인식하고 있음.

(2) 지역과 도시에 있어 웰빙 측정

1) 사회적 진보 측정을 위한 제4차 OECD 국제 포럼 결과

- 동 포럼의 목적은 효과적이고 책임있는 정책 입안을 위한 새로운 웰빙 측정 방안의 개발과 이용을 촉진하고, 학술, 단체 회원 간의 논의를 활성화하기 위함이었음.
- 경제적·사회적·환경적 차원에서 지역과 도시의 웰빙에 관한 통계 자료들이 많이 산출되었음. 특히 TL2 지역과 대도시권에 관한 새로운 지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짐.
- 이러한 지표들은 OECD 지역데이터에 포함될 것임.

2) 안전의 자기보고식 측정에 관한 멕시코 사례

① 주요 발표내용

- 최근 멕시코 통계청에서 실시한 피해자 조사에 관한 분석 결과를 설명. 회원국들의 유사한 정보 수집의 타당성에 대한 논의를 제안.
- 멕시코에서의 보안과 정의를 구현하는 입증 기반의 정책 입안 강화를 위한 연구로서 OECD 회원국과 비교하여 지역적 범죄 분포에 관한 연구를 수행

3) 공공서비스의 접근성 측정

① 주요 발표내용

- 공공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은 복지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임. 접근성은 공간적 특성과 주로 관련되며, 지리적 위치와 관련된 정책의 시행에 따라 즉각적으로 반응하게 됨.
- 접근성에 대한 측정은 농촌과 도시 간의 연계와 지역적 차원에서의 복지 측정에 관한 현행 작업들과 연관이 있음.
- OECD 지역 (프랑스, 독일)에서의 대중병원에 대한 공간적 접근성 측정에 관한 예비 결과를 제시하며 접근성 지수를 소개
 - * (선택지표) 천명 거주인 당 병원수, 가장 인접 병원시설에서의 시간범위내의 인구 퍼센트, 인접병원 측정되는 평균 거리
 - * (분석적 구조틀) 잠재적 접근성, 공간적 접근이 복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서비스에 중점, 국제적 비교가능성, 지리정보시스템, OECD TL3 등으로 분류
- 의료서비스 접근성에 관한 TL3 지역의 지표 구축이 필요하고, 응급조치와 같은 지역복지를 위한 가장 관련된 병원에 의해 공급되는 서비스에 중점을 두는 것이 중요하며, 지리정보시스템(GIS)은 이러한 지표를 구축하는 최선의 대안임을 언급
- 향후 조치로서는 병원 특징에 관한 부가적인 정보 등의 분석과 보완이 필요

요하고, 의료서비스의 수요와 공급을 나타내는 지표 구축이 필요함을 언급

- 또한, 농촌과 도시 간의 연계와 지역 차원의 복지 측정에 관한 현행 작업에 대하여 지역적 차원의 접근성 측정을 위한 지표가 필요하며, OECD 회원국의 필요한 데이터 입력 수집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함을 언급
- 공공서비스 접근성 측정 지표 등 지역 지표들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함. 관련 지표와 정책들에 대한 회원국들의 경험을 공유할 필요가 있음.

4) 지속가능한 도시화 형태의 방향

① 주요 발표내용

- 대중교통 지표는 지속가능한 도시 형태를 측정하는데 중요하나, 대도시권 지역에서의 대중교통의 개발은 관련성 및 활용성에 있어 도전과제로 제기되고 있음. 도시의 대중교통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를 개발하는 방법을 제안
 - 도시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대중교통이 환경적 편익(이산화탄소 저감), 사회적 편익(저렴한 교통비, 개인 건강증진 등), 경제적 편익(녹색 직업 및 기술 발전) 등을 제공하는데 있어 크게 기여하였음
 - 대중교통 지표개발에 있어 정책 성과를 가장 잘 설명하는 관련 지표가 무엇인지, 정의를 설명하는 방법,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법 등의 도전과제가 있음을 언급
 - 토지 이용과 교통 통합을 위한 정책 평가 및 감시하는 방안을 개발하는 방법, 이러한 지표를 수집함에 있어 직면하는 도전과제가 무엇인지 등을 논의함

② 주요 논의 내용

- 한국 대표단은 OECD 사무국의 대중교통 지표 개발 연구를 위한 노력을 지지하고, 동 내용의 분석을 위해 필요한 관련 통계자료도 제공할 것이라고 언급함
 - 다만, 통과 교통량(2개 이상의 도시를 경유하는 교통량)의 처리 문제와 분

석 단위, 즉 OECD 사무국은 기능적 도시범위를 기준으로 분석할 계획이나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교통 통계를 행정 구역 단위로 생산되는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지 추가 논의 필요함을 강조

- 아울러 한국 교통연구원이 오랫동안 한국 내 교통관련 기초 통계를 집계해서 통계 Database를 구축(KTDB)한 바가 있으므로 필요시 한국의 경험을 공유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언급함

(3) 데이터 시각화: 결과물의 효과적인 활용

1) 미국의 클러스터 지도화 프로젝트(US Cluster Mapping Project)

- 클러스터 지도화 프로젝트의 취지는 미국 지역 클러스트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지역간 경제 개발 기구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함임.
- 클러스터 정보 업데이트(신문, 관련사건, 장기 블로그 등), 외부 문서 연결, 간략한 항목 설명, 필요시 전문 정보 제공 등의 장점을 가지고 있음

2) “한눈에 보는 2014년 지역”에 관한 웹사이트 내용

- 웹포탈 목적은 데이터 시각화로 단일 접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 데이터에 관한 결과물 배포를 증가시키고, 지역적 대도시권 작업, 데이터 시각화 접근이 용이하도록 하며, 지자체 차원의 행정구조, 지역정책과 제도 수립 등을 설명하는 유용한 웹사이트임을 언급

3. 제28차 지역개발정책위원회 회의 결과

□ 회의 개요

1. 주요 의제

- 차기 TDPC 장관회의 정책의제(2014년 봄)
- 재난 이후 재건사례 : 이탈리아 아부르초 라퀼라
- 2013-14년 작업프로그램 이행, 공공투자 관리
- 녹색도시, 스마트 시티 : 도시성장과 개선된 삶의 질

2. 일시: 2012년 12월 4일(화) ~ 12월 5일(수)

3. 장소: 파리 OECD 본부 컨퍼런스센터

□ 핵심요지

- 차년도 TDPC 장관급 회의(2014년 봄) 아젠더에 대하여 지속가능한 성장(포괄적 성장)을 위한 도시의 역할에 대한 일반적인 논의와 더불어, 2014년 봄에 개최될 예정인 장관급 회의 의제 설정에 대한 논의
- 공동 투자와 관련하여 정부차원의 조정과 수용력 도전과제를 검토하고, 예산 제약 시기에 있어 지자체 자원에서의 공공투자 효과성, 정부차원의 공공 투자 원칙 논의
- 국가적 녹색성장의 중요 이유, 최우선적인 도시의 녹색성장 정책 내용, 거버넌스와 자금조달의 방법 등에 관하여 도시의 녹색성장에 관한 전략적 방안 논의

□ 관찰 및 평가/건의

- 2014년 TDPC 장관급 회의 의제 논의에 적극 참여하여 우리측 관심사항 의제를 포함시키도록 적극 노력하고 다른 회원국들의 의견 입장 파악이 필요

- OECD TDPC 차원에서 관심의제인 도시의 녹색성장에 관한 전략적 방안이 논의되고 있어 향후 회원국들의 입장을 파악하고 우리측 입장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

□ 주요 회의 결과

(1) 장관회의 로드: 국가 및 국제 우선순위

① 주요 발표내용

- 차년도 TDPC 장관급 회의(2014년 봄) 정책 아젠더에 대하여 지속가능한 성장(포괄적 성장)을 위한 도시의 역할에 대한 일반적인 논의와 함께, 2014년 봄에 개최될 예정인 장관급 회의 의제 설정에 대한 토론을 요청
 - 차기 장관급 회의개최 준비상황(개최지 등)에 대한 정보 제공과 주요 의제 등을 논의

② 주요 논의 내용

- (러시아) 러시아에서는 장관급 회의를 위해 회원국들 간에 네트워크를 맺고 있음. 러시아 지역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예정이며, 경제 개발 지원에 대해서도 OECD 원칙에 따라 참여할 것임.
- (사무국) 그 동안 회원국들은 녹색 성장, 웰빙 측정, 혁신, OECD 패키지 추진을 위해 필요한 TDPC 프로그램 작업 등 2013-2014년 아젠더를 발표하였음.
 - 차기 장관회의의 호스트 국가 결정, 아젠더 등의 위원회 승인 등이 필요함. 특히 장관 관심 의제 및 지역개발정책의 범위 등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요청
- (영국) 경제 위기 상황에서 실질적인 성과 창출을 위한 토의가 필요하며, 특히 한국의 녹색 성장, 시카고의 사례 등을 교훈삼아 혁신적인 경제 개발과의 연결 등이 중요할 것임. 중단기적인 국가 중점사항으로 영국은 녹색성장에 관심을 갖고 있음
- (미국) 혁신적인 전략이 중요한 과제이며, 특히 통신시스템 구축 등의 검토

가 필요

- (호주) 혁신적인 전략과 도시 정책 사항을 분리하는 것이 필요함
- (덴마크) 국가지역정책 과제로서 혁신 의제는 중요함. 농촌과 도시의 연계에서 정부 기능이 중요한 의제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녹색성장도 중요한 사항임
- (유럽연합) 경제위기에 대응하는 구조개혁 등을 포함하는 지역개발정책 필요
- (네델란드) 무역과 같은 경제성장과 관련한 사항과 지역클러스트 촉진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고, 국가적 지역적 경쟁 강화 연결이 중요함

(2) 재난 이후 지역 복원 구축

① 주요 발표내용

- 복원과 장기적인 지역 개발에 있어 지역적 시스템의 복원은 사회적 및 자연적 쇼크에 대응하여 사적과 공적 기관의 특성에 달려있으며, 자연재해에 대한 정책대응은 복잡하고 장기적인 재분배를 위해서 공동체 연대와 참가를 기반으로 적절한 거버넌스 시스템 필요로 함
- Abruzzo 개발은 지역개발 정책의 중요한 역할이며, 다차원 거버넌스의 새로운 준비는 현행과 향후 쇼크의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전략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

(3) 공공 투자 관리

1) 공공투자 보고서 논의

① 주요 발표내용

- 민간 섹터의 활용은 대안적 공동 재원을 가동할 수 있음. 특히 가치있는 민간 분야 전문가가 공공투자 프로젝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임.
 - 민간섹터는 현재의 자금조달 갭을 연결하는 중요한 역할로 인식되어 왔으나, 민간분야 계약의 광범위한 이익과 공공투자프로젝트에 있어 민간 시행자 통합에 관한 이해 부족은 동 추진방향을 저해함

- 투자의 조건부와 계약은 다양한 조정 과제를 일시 처리하게 할 수 있어 많은 국가들은 정부차원의 투자관리를 조건부 방식으로 이용
- 투자계획과 관리의 중요한 분야에 있어 지자체의 수용력을 강화하는 것은 개선된 공공투자 결과에 기여하는 주요한 요소임
 - 수용력은 전략적 계획, 엄격한 평가수행, 공공투자에 관한 혁신적인 자금조달 메카니즘, 투명하고 경쟁적인 조달절차, 시스템모니터링, 공공투자 기획·집행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전문성 활용성 확보

② 주요 논의 내용

- (영국) 영국에서의 정부는 조정 역할을 하며, 민간이 가지는 리스크를 줄이고 지방 정부와 민간 기업간의 조정 역할을 수행함. 지역정부는 민간투자자에 대한 신뢰가 낮고 펀드에 대해서 불확실하므로 중앙정부 차원에서 보장하고 연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봄
- (미국) 과거 오랫동안 연방정부를 연결하는 레버러징에 대한 더 나은 조정에 대해 노력해 왔음. 연방 정부와 지역 정부 간의 더 나은 파트너십 구축은 중요한 요소임. 지역 정부가 교육 기관의 연구와 혁신을 통해 파트너십 구축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함. 특히 공공부문 효율적 투자와 연방 및 지역정부간 협력을 위해서는 정부 구성원의 높은 교육 수준이 필요함.
 - 특히, 연방정부의 지역정부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고 결속력이 강해질수록 더 나은 협력과 조정이 가능해지도록 하는 Convening Power 강화 필요
- (캐나다) 캐나다는 천연 자원에서 GDP의 50%를 차지함. 지역 개발 차원에서 인프라 개발 등은 도전적인 사업이며, 민간 기업 차원의 이익을 고려한 연구 진행이 필요함.
- (포르투갈) 공공 및 민간 투자에 있어 투자 감소는 잠재적 GDP 감소로 이어지는 바, 정부의 거버넌스가 필요하며, 정책 지표에 관한 좀 더 면밀한 검토도 필요함.
- (네덜란드) 민간 투자에 있어서는 공공적인 거버넌스가 필요하며, 경제적 성공을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수행이 매우 중요하며 국가 정부는 조정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필요함

- (호주) 지역정부는 매우 다른 모형을 취하고 있으며, 대규모의 지역 정부들이 있다, 중앙정부의 인력으로 소규모 지방정부를 도와줘야 하지만 파이낸싱에 있어서는 쉽지 않음

2) 정부차원의 투자에 관한 향후 OECD 원칙 사례 논의

① 주요 논의 내용

- (미국) 오바마 정부는 강한 도시의 커뮤니티 정책을 추진 중에 있음, 연방정부와 지방정부간의 파트너십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장기적으로 계획하며, 지방정부는 연방정부의 예산 도움 없이 자체적으로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음
- (스웨덴) 경제 위기 상황에서 정부의 투자 원리는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메시지임, 몇 년전만 해도 이러한 토픽에 대해 논의하는 일이 없었으나 이제는 새로운 기조가 되었고 이점에 대해 매우 기쁘게 생각함, 처음에는 제한된 기능 지역에서 시작하여 점차 넓혀가는 것이 필요, 특히 세금의 지역개발 정책 활용 연구와 관련하여 지역별 상호 협력과 효율성이 매우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사항.
- (영국) 이제는 경제 성장 뿐만 아니라 평등성 및 녹색성장에 대한 투자가 필요, 향후 25년을 바라보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해야 하며 기후 변화 등을 고려할 필요
- (슬로베니아) 오늘 발표한 원리는 매우 전략적이면서 실질적인 내용으로 각 부처에서 많은 관심을 가질 것, 6번째 원리와 8번째 원리는 함께 실천되어야 하며 수직적 수평적 협력이 함께 고려되어야 함, 7번째 원리는 보충적인 내용으로 판단됨
- (오스트리아) 첫 번째 원리와 관련하여 정부 내부 뿐만 아니라 정부간에도 이 전략이 적용되어야 할 필요
- (그리스) 현재 그리스 상황에서 모든 스테이크홀더가 국가 전반적인 틀을 새로 세우기 위해 협력중, 하지만 확신이 필요한데, 위기동안 그리스는 확신을 잃어버려 의사결정에 큰 장애로 작용하고 있어 확신을 회복할 필요, 또한 그

리스는 상위 25%의 소득층이 고립되어 이에 대한 해결이 필요

- (터키) 3번째 원리를 비롯하여 통합은 하위정부 뿐만 아니라 국가정부에 대해서도 적용됨, 그리고 원리들은 상호 연관성을 고려하여 다시 재정리 되어야 할 것
- (UE) 몇가지 원리들은 실제 적용이 힘든 것으로 보여 재확인 필요, 또한 여기서 언급된 원리들은 OECD 전반에 걸쳐 논의되어야 할 것
- (포르투갈) 네 번째 원리와 관련하여 투명성, 도덕성을 포함한 수준이 되어야 함, 이러한 원리들은 규모가 작은 국가에서는 국가 정부레벨에서 적용이 가능
- (의장) 용어정리, 카테고리 정리 등이 필요하다는 리포트의 근본적인 이야기가 많이 제기, 10~14 원리들은 모든 정부 레벨에서 적용이 필요, 원리들은 고립된 것이 아니며 표현을 위해서 카테고리 한 것으로 상호연관 및 작용은 당연
- (사무국) 오늘 나온 코멘트들과 원리들을 문서로 정리할 예정으로 재검토가 필요하며, 1년내에 보다 최근 자료를 통한 업데이트가 필요

(4) 녹색도시 : 도시 성장과 개선된 삶의 질

① 주요 발표내용

- 녹색도시 의미, 국가적 녹색성장의 중요 이유, 최우선적인 도시의 녹색성장 정책 내용, 거버넌스와 자금조달의 방법 등에 관하여 도시의 녹색성장에 관한 전략적 방안 논의
- 녹색도시의 의미
 - 부정적인 환경적 외부요인과 천연자원과 환경적 서비스를 줄이는 도시 활동을 함으로써 경제적 성장과 개발 촉진 가능
 - * 부정적 환경요인은 대기오염, CO2 배출을 의미하고, 수도, 에너지와 미개발 토지 등 천연자원과 환경적 서비스의 소비로 정의하고, 도시활동은 토지이용계획, 교통, 건축, 에너지, 쓰레기, 수도 6가지 분야로 분류

○ 국가적 녹색성장 전략의 중요 이유

- 도시들은 국가 경제와 환경 실행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대도시의 경제는 GDP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나 교통체증, 대기 및 수질오염, 생태계 손실 등의 부정적인 외부요인이 발생하고 있음
- 도시들은 교통, 건물, 수도, 폐기물 및 기타 환경서비스 등과 같은 녹색분야에 대한 상대적 대규모 추진 이익을 갖고 있음을 의미

○ 도시 녹색성장 정책의 우선순위 과제

- 환경 영향을 줄이는 도시 활동을 통해 대도시권의 매력을 증진하는 것이 우선인 때 교통시스템 효율화의 정책에 중점이 되어야 하며, 토지 이용 통합, 교통 계획, 대중교통 투자는 컴팩트도시 형태 달성에 중요
- 도시 중심의 개발을 추진하는 토지이용 계획은 현존하는 인프라를 극대화하고, 인구밀도를 증가시킬 수 있으며, 혼잡통행료 이행 및 전략적인 대중교통서비스 개선은 도시교통 시스템의 효율화에 기여
- 환경 영향을 저감하는 도시활동을 통해 도시 토지가치의 증진이 우선인 경우, 충전식 개발과 생태구역 등 도시 재개발에 중점이 되어야 하며, 재개발 사업은 에너지 효율과 녹색 특성 증진에 기여

○ 거버넌스와 자금조달 도전과제 방안 : 공공기관은 지역과 국가적 요소 간 조정을 함에 있어 잠재적 차이에 중점을 둬으로써 다자간 거버넌스 도전과제를 해결할 수 있음

- (목표적 차이) 한국의 경우 중앙정부의 녹색도시 입증 프로젝트 중의 강릉시에 관한 작업을 중지시킨 양 부처간 갈등은 양 부처와 지자체 정부에 의한 양해각서 서명에 의한 극복됨
- (행정적 차이) 지자체간의 협력은 제한적인 협력임에도 불구하고 환경적 및 경제적 더욱 일관성이 있는 방식으로 도시서비스(용수 또는 폐기물 관리) 관리에 더욱 도움을 줌
- (정책적 차이) 도시의 녹색성장 촉진에 필요한 교차편집, 통합적인 정책입안 접근은 정부가 정책입안 사일로 작업의 경향과 같은 전통적인 정책분열을 극복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

○ 녹색도시를 추구하는 주요한 도전과제는 환경 영향을 저감함으로써 성장을 촉진할 도시활동의 투자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는 것임

- 도시들은 건축과 교통과 같은 인프라 관련된 분야에 관련된 재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고, 이는 녹색도시 촉진하거나 방해할 수 있음. 민간자금 조달은 도시 녹색인프라 프로젝트의 자금 갭을 보충할 것임

② 주요 논의 내용

- (영국) 영국에서는 세계 최초로 녹색성장을 위한 전용은행 설립하는 등 많은 관심이 있으며, OECD의 다른 위원회에서도 녹색성장은 주요 이슈, 따라서 OECD에서 수평적 협력 및 논의가 필요, 빠른 성장을 보이는 도시에서는 새로운 잠재적 녹색성장 제품 시장이 형성 될 것, 특히 중국, 대만 등의 도시에서는 에너지 세이빙, 물 재활용 기술 등의 시장이 형성될 것, 이로 인해 도시의 고용증진 및 효율성 증가 등 win-win 상황이 될것이다.
- (일본) TDPC가 지속적으로 이러한 연구를 계속 하길 바람, 오늘 발표된 컴팩시티 보고서 역시 녹색성장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으며 매우 중요한 이슈로 생각, 앞으로 이러한 논의가 지속되길 바람, 영국의 녹색성장을 위한 전용 은행은 배울만 한 점이라고 생각, 많은 참여자가 지속적으로 참여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며 녹색성장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함께 논의하는 것 역시 중요